

# 우리 아이들, 희망을 말하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촛불문화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3차 문화제 열려 : 학생 공연 · 발언으로 우리 교육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6-8시 4차 촛불문화제 ‘특투미!’ : 밴드 삶송,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참여신청 : 하단 배너 클릭하여 시트내용을 작성후 제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3차 촛불문화제가 10월 13일 토요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계단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주 예정이었던 3차가 태풍으로 취소되면서 13일 문화제가 3차가 된 것인데, 한주를 쉬어서 인지 많은 분들께서 더 설레는 표정을 가지고 문화제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1, 2차 문화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셨던 전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의 진행으로 3차 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 무대는 세월호 이후로 매주 마로니에공원에서 진상규명 서명회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가수 안현 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안현 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멋진 세상에서 배우며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며 ‘귀뚜라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의 노래로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3차 문화제 특징은 1, 2차 때와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3차 문화제 첫 발언자도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심민기 학생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보내다 입학 후 입시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만 하는데 길들여지는 것이 두려웠다. 생각 없이 공부만 하면 순응하는 바보, 기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제를 뒤흔칠 수 없으니 받아들이되 휩쓸리지는 말자, 의구심을 가지자고 다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가까운 미래는 내 동생, 후배에게 다가올

현재이기도 하다. 내가 겪는 현재와 똑같은 것을 물려주게 될 것 같다. 내가 힘들었던 것을 똑같이 물려주기 싫다. 더 좋아져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이라며 동생, 후배들이 지금과는 다른 학교, 교육을 경험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제에 참석한 어른들이 주변을 바꾸고 큰 변화를 일으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이어간 김재영 학생. 김재영 학생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6시 30분에 일어나 학교에 7시 50분까지 등교. 4시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가서 영어단어 달달 외우고, 수학 문제 달달 푼다. 학원에 안가면 학교에 남아 10시까지 야자를 한다”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 재영 학생은 이 일상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사는 것이 느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 후배들은 시험 신경 쓰지 않고 학교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즐기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하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부탁을 어른들, 특히 청와대는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가요?



학생들의 발언 뒤에는 멋진 노래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나예담 학생이 윤하의 ‘오늘 헤어졌어요’와 소향의 ‘바람의 노래’로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나예담 학생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노래로 작은 외침을 하고자 나오게 됐다”며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뒤이어 나예담 학생의 아버지, 나희성님께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희성 학부모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풀어가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를 가도 노출되어 있는 ‘경쟁’과 ‘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변 동료가 한 이야기의 답변을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동료에게 들었다. 세상은 어차피 아무리 뭘 해도 안 바뀌고 어차피 안 바뀔 세상 아이들이 힘들더라도 실력 좋은 아이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제도로 바뀌어야 하고 정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대답하겠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가만히 있는가? 그것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한다. 우리가 미약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활활 타오를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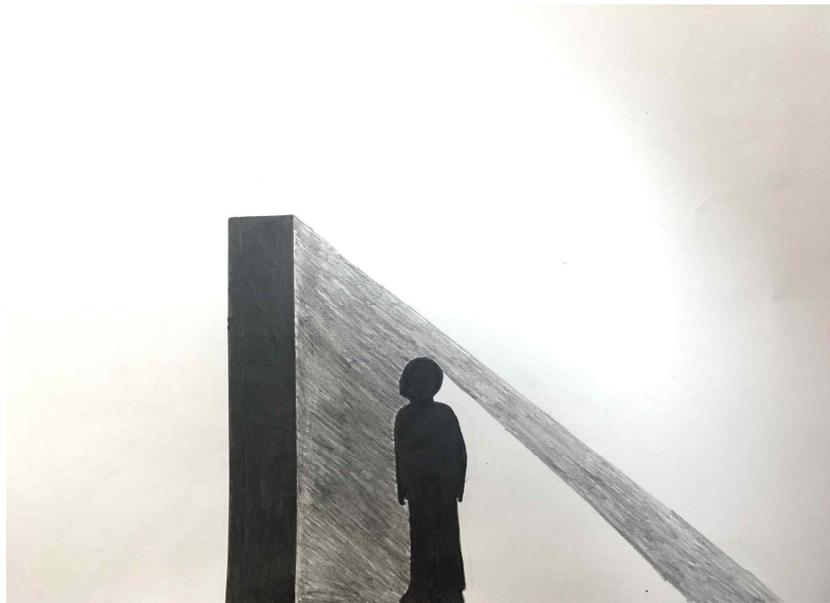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에 보내는 한 아이의 편지’ 심범기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광화문에 섰습니다. 범기 학생은 “공약대로 서열화 된 학교를 바꿔 주실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누구라도 대통령님께 이런 발언을 해 드려야할 것 같아 나왔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만화작가를 꿈꾸고 있다는 범기 학생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림을 많이 그려도 우리나라 대학에 가려면 이런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수학도 잘해야 하고 영어도 잘해야 하고 과학까지 다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은 저의 무엇을 평가하는 건가요? 다른 학생들과 제가 어떤 점이 다른거죠? 그러면 저도 대학의 이런 시스템에 맞춰가라는 건가요?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맞추라고 해서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다 퍼즐 조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춰지지 않는데 억지로 맞추려 하니 저처럼 모든 친구들이 다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대통령님께서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라는 범기 학생의 외침.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범기 학생이 대통령에게 편지글을 읽는 동안 뒤편으로 한 그림이 띄워졌는데요, 이 또한 범기 학생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의 높은 벽은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으로 인해 깊게 드리운 그림자. 이 그림자는 부모와 선생님들의 압박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 늘 갇혀서 진짜 자기 모습의 그림자(흰부분)는 나타나지 않고 모두 똑같이 검은 그림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림입니다. 문화제 주최 측은 이 편지와 그림을 반드시, 꼭 청와대에 전달할 것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언 사이에 조인정 마임이스트가 우리 경쟁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멋진 몸짓으로 활기를 더해주었습니다. 마임으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접하게 되니 더욱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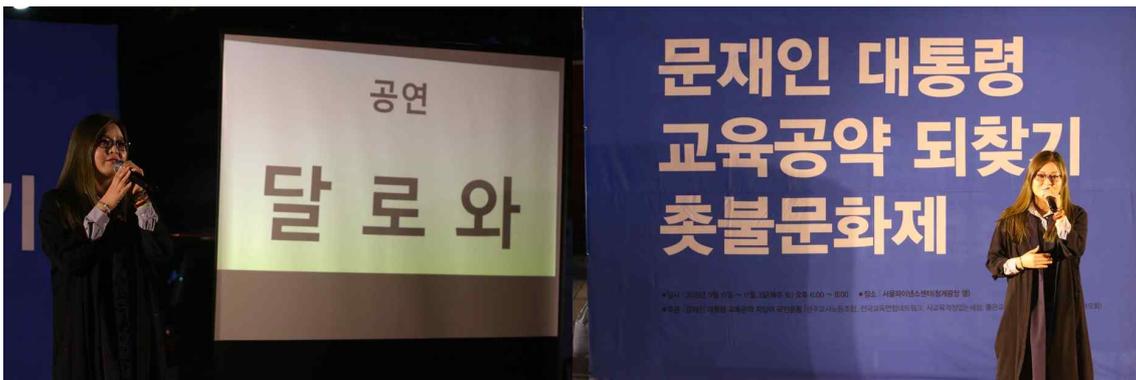


이제 어른들이 발언할 시간. 먼저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과교육포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학의 아버지, 수학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수일 대표는 올해 전반기 수학기 hate 이슈였던 기하벡터 과목의 수능범위 제외 사건으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입시제도가 많이 바뀐 지금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수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기하벡터가 수능 범위에서 빠져도 학교에서 충분히 수업시간에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수학교육에 대해 “한국 수학교육은 수학을 쓸모없게 만드는 교육이란 측면에서 반성해야 한다. 고등학교 미적분이나 기하는 그야말로 수학 곁핍기식으로 배우고 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에서 정의적 영역 성취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수학 점수는 높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이 없다는 것이다. 수능수학 1등급이지만 수학은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현주소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며 뼈아픈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수학교육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덜 가르치고 더 공부하게 만들자, 조금만 가르쳐서 제대로 공부하게 만들자”라고 소개하며 그저 쉽고 조금만 가르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자녀와 나누게 된 대화를 소개하며 결국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우리 현실, 누군가에게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바꾸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다면 아직도 이렇게 지지만 하는 교육이었을까. 교육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왜 입시와 대학 이야기만 할까하는 고민도 했다.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교육공약 아닌가. 교육공약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정당한

땀가를 받으며, 차별받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 거기까지 가야 교육공약”이라며 사회를 바꾸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마지막 공연은 달로와! 팀인줄 알았는데, 솔로 가수였습니다. 달로와는 “지난 촛불 이후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경험으로 믿고 있다. 교육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며 사막에 씨를 뿌려 숲을 이루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 ‘숲이 될거야’ 등을 불러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화제 마지막 순서. 우리가 문화제를 열어오는 동안 교육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교육정책과 이슈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가 최근 교육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저질러버린 정책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밝혀놓고 속도전을, 거꾸로 가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곤 장관, 유은혜 장관까지 왜 평소 본인의 신념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수석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

했고 “교육수석실을 부활시켜 원칙에 맞는 정책, 공약 회복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활동으로는 10월 18일, 24일에 국회에서 열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안 마련 토론회를 소개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공약을 생각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계단 앞에서 7차까지 문화제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다해 침몰해가는 우리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 기 간 : 2018년 9월 15일~11월 3일(매주 토요일 6시~8시, 단, 추석 연휴 22일 토요일 행사는 진행되지 않음)

※ 행사 일정(시간은 저녁 6-8시로 모두 동일)

1차 문화제 9월 15일 토요일

2차 문화제 9월 29일 토요일

3차 문화제 10월 6일 토요일

4차 문화제 10월 13일 토요일

5차 문화제 10월 20일 토요일

6차 문화제 10월 27일 토요일

7차 문화제 11월 3일 토요일

■ 장 소 : 광화문 청계광장 옆(파이낸스 빌딩 계단 광장)

■ 주관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2018. 10. 16.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